

밀리터리 커스텀(Military Costume)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 고대 국가를 중심으로 —

김 난 희

충북전문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Formal Process of Military Costume — Especially on Ancient Empires —

Rhan Hee Kim

Dept. of Fashion Design, Chung Buk College

(1996. 10. 22 접수)

Abstract

Costume of each age reflects its own history. Military costume is an reflections of war, social and geometrical background. Soldiers on their uniforms were at the battlefields with their lives and country on their shoul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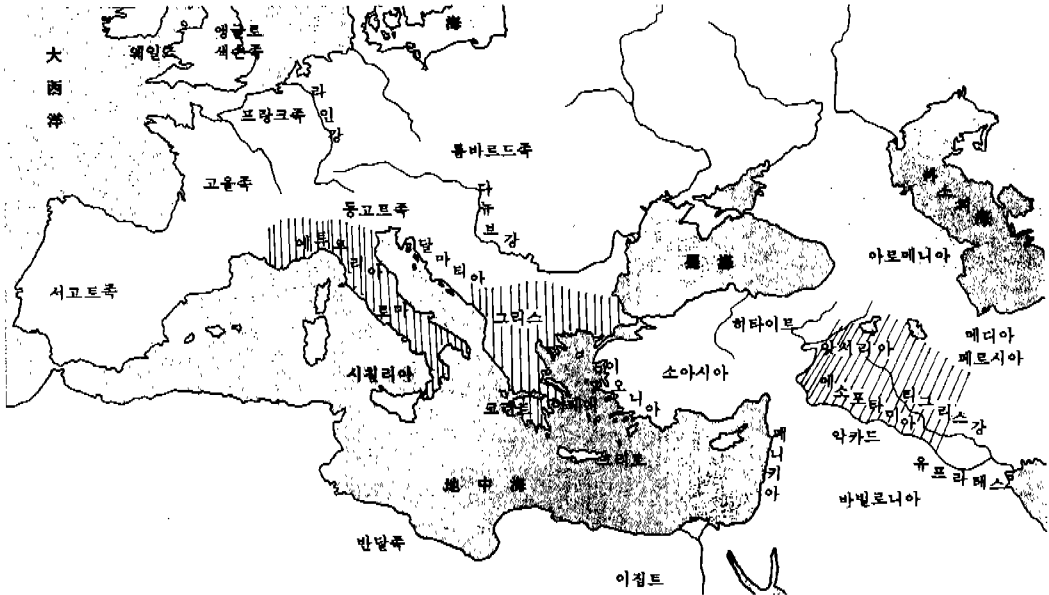
The main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study military costume of ancient empires in historical point of view including especially those of Egypt, Mesopotamia, Crete, Greece, Etruria, Rome.

As we will see, ancient military costume developed from earlier stages of uniforms into military costume in various ways. The types of military costume formed itself gradually but rapidly into sophisticated, useful, and excellent quality clothes. Military costume of early ancient empires signified its strength and were actual and symbolic costume that determined life and death, glory and disgrace.

I. 서 론

각 시대의 복식에는 역사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군복(Military costume)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사회적, 지리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전쟁이 멈추어졌던 시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지구 한 편 어디에선가, 전쟁은 교대로 치루어지고 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 한 개인의 생명과 전쟁의

승패에 따른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그 싸움들을 치러 왔다. 따라서 군복은 활동성과 안전성, 실용성 등의 목적이 극대화된 옷이어야 했고, 그 시대 복식의 기술적 수준을 망라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근자의 결프전에 참가했던 동맹국의 군인들은 그 출신국을 불문하고, 사막과 같은 색상의 보호색인, 갈색 군복을 입고 출전했었다. 그 군복은 최첨단의 복식기술과 아이디어(색상과 디자인)로 이루어져 있음이 세계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렇듯 군복은



고대 서아시아와 게르만족의 이동정착지역

디자인, 패턴, 재단, 봉제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복식의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군복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복식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가 처음으로 형성되던 시기, 즉 초기 고대 국가들의 군복에 대한 복식사적인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이집트(B.C. 3400~1525), 메소포타미아(B.C. 3000~600), 크리트(B.C. 2800~1300), 그리스(B.C. 1200~146), 에투루리아(B.C. 900~500), 로마(B.C. 900~A.D. 500)의 군복 형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시대의 군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고대 군복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고대 군복의 사적(史的) 고찰

II-1. 이집트

1) 역사적 배경

함(Ham)족의 여러 부족들이 부족국가를 세운 뒤, 메네스 왕은 이들을 통합하여 이집트를 건설하였다. 그 후 이집트는 파라오 왕에 의하여 전제정치를 이루었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실시하는 계통 질서가 엄격한 국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3000년간 30 왕조가 교체되었는데, 크게는 고왕국(B.C. 3000~2065), 중왕국(B.

C. 2065~1580), 신왕국(B.C. 1580~1525)으로 구분된다. 지리적인 폐쇄성으로 외부의 침입이 어려워 폐쇄적인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왕국의 수도는 멤피스로 4, 5대 왕조가 전성기였고, 6대 왕조 시대는 지방 족벌의 세력이 대두되어 정치적 봉건시대를 출현시켰다. 중왕국은 테베(정치, 종교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왕권이 회복되었고, 영토 확장, 정치 강화, 상업 발달, 예술 발달 등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다가 말기에는 왕권이 쇠퇴하고, 아시아로부터 히크소스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신왕국은 이집트의 제국시대라고 하고 고대 이집트의 최강성 시대를 이루었다. 제17왕조기에 히크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을 수립하였고, 아메노피스 3세 때에는 지중해 연안과 메소포타미아까지 영역이 확대되었으나 B.C. 670년에는 앗시리아에게, B.C. 525년에는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고, B.C. 331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을 끝으로 종말을 맞이하였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농업이 주류를 이루었고, 교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집트의 문화는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다신교를 믿었으며 그 중 태양신이 가장 주된 신이었다. 영혼 불멸과 사후 세계에 대한 신앙은 피라미드 건설을 가능케 하였으며, 피라미드 내부에는 신이나 왕이 주관하는

의식, 노예 생활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 벽화의 그림은 이집트의 복식을 잘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군복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 이집트의 군복

이집트의 군복은 어떤 특정한 유형이 있었다기 보다는 복식의 기본형에서 변형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흰 로인 클로스(Loin cloth)를 입었는데, 때로는 줄 무늬나 색깔이 있기도 했다. 중왕국 때에는 가죽 에이프론(Apron)을 보강했으며, 신왕국 때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왕은 짧은 소매의 기모노 형태의 전투복을 입었으며, 장교들은 넓은 Kalasiris 튜너를 입고, 전쟁 중에는 린넨으로 만든 자켓을 입었다¹⁾. 왕의 넓은 밴드(band)는 신성한 매나 독수리의 날개를 접은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여왕은 전쟁 중의 남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독수리 형상을 한 머리장식을 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이집트인들은 식물과 동물은 물론, 샘, 태양, 땅 등 전 우주 사물이 인간에게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여겼다⁴⁾. 이러한 주술적인 장식은 의복 앞 중앙에 묶여진 띠에 주름을 잡아 신성한 매나 독수리의 보호 날개와 같은 효과를 내었다. 푸른 군인 헬멧은 왕족만 쓸 수 있었지만 활동적인 전쟁 중에는 제한되지 않았다. 다른 방법으로 대담하게 옷을 입던 람세스 2세는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장식적으로 헬멧을 썼다. 제국시대 동안 하사관과 조병들은 활동하기 편하게 짧은 스커트를 입고, 보호를 위해 심장 모양의 문장을 허리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죽을 늘여서 만든 것 같다⁵⁾.

또한 이집트인들은 갑옷에 여러 가지 직물을 조화시킴으로써, 원래 목적인 방어뿐 아니라 기후에도 알맞은 갑옷을 만들었다.

II-2. 메소포타미아

1) 역사적 배경

B.C. 3000년 경, 수메르인이 우르, 라가쉬, 울마 등



[그림 1]²⁾ 冠(18 王朝) : Tutankhamen 분묘에서 발견된 뱀모양의 uraeus와 독수리 머리의 금관



[그림 2]³⁾ 비치고 주름잡힌 의상과 왕족의 전투용 헬멧을 쓰고 있는 람세스 2세(B.C. 1292~1225)

1)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Y. 1983. p. 100.
 2)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1), p. 27.
 3) 블랑쉬 페인,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문화사, 1988), p. 38.
 4) 이성기 역, 「동양과 서양의 만남」(서울, 유림사, 1980), pp. 21~24.
 5) 블랑쉬 페인, 앞의 책, p. 35.

열 개의 도시 국가를 세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토대를 이룬 것이 수메르(B.C. 3000~B.C. 2300)⁶⁾이고 아부르인이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을 정복하여 바빌론에 도읍을 정하고 왕국을 건설한 것이 바빌로니아(B.C. 2300~B.C. 1600)⁷⁾이다.

지리적으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는 비옥한 지역으로 개방된 지리는 외적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였고, 정치, 문화적으로는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⁸⁾. 앗시리아는 교통의 요충지인 북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셈족이 세운 나라로 B.C. 14세기에 이르러 아슈르-워발리트 아래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B.C. 12세기 말에는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었다⁹⁾.

앗시리아는 처음에는 상업국가였으나 철제무기와 기마병으로 무장한 강한 군사 국가로 발전하여 B.C. 8~7세기에는 페르시아 만에서부터 지중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하여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¹⁰⁾. 호전적인 기질로 세계를 제패했으나 점령지에 대한 가혹한 통치와 억압으로 자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B.C. 7세기 말에 짧은 역사로 멸망하고 말았다.

인도-유럽어족인 아리아인은 B.C. 2000년 경에 이란 고원과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동하였다.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메디아의 지배를 받았으나 키로스 2세 때(B.C. 6세기 말) 메디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지배, 다리우스 1세 때(B.C. 5세기 초) 오리엔트를 완전 통일하였다.

2) 메소포타미아의 군복

에안나툼의 독수리 석비의 아래 부분에 새겨진 것을 보면, 수메르의 군인들은 키우나크스를 입고 보기 좋은

헬멧을 썼다. 윗 부분에 새겨진 것을 보면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전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목에서 발목까지에 이르는 겹쳐진 거대한 방패를 하고 있다. 왕의 헬멧은 인조 쪽진 머리모양을 하고 있어서 구별되는데, 헬멧을 둘러싸는 띠로 적절하게 묶어 놓았다. 헬멧과 방패는 둘 다 가죽으로 만들어졌다¹¹⁾.

지금 브리티쉬 박물관에 있는 또 다른 전쟁 장면이 담긴 모자이크 군기는 우르의 왕족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팔리스의 연대표에서는 이 고분이 B.C. 2400년 경의 것이라고 추정한다¹²⁾. 이 놀라운 구성에서 군인들은 턱 끈이 있는 헬멧을 쓰고 있고 텔 아스마르의 것과 비슷한 데기드(Dagged) 스커트를 입었으며, 가죽으로 만든 케이프를 하고 있는데 가슴을 가로 지르는 끈으로 고정시키고 있다¹³⁾. 앗시리아는 특히 군복의 발달로 유명한데 가죽이나 청동, 철 등을 사용하여 만든 헬멧과 갑옷은 군복의 기능을 갖춘 최초의 밀리터리 커스텀(Military Costume)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로 넓직한 띠를 하여 칼을 찬 것이 수대(綬帶, baldric)의 호시라고 할 수 있고, 허리에 호신용으로 넓은 띠를 감아 맨 것이 군복에서 폭이 넓은 천을 허리에 감아 메는 것의 시초가 되었다¹⁴⁾. 공사는 금속 조각을 붙인 발목 길이의 긴 튜닉을 입고 허리에 넓은 가죽 벨트를 하고 얼굴만 내놓는 후드 달린 헬멧을 썼다.

B.C. 700년 이후 기병과 보병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흉갑(breast plate)을 대고 아래엔 바지를 입고, 정강이까지 오는 부츠를 신어서 더욱 완벽하고 기능적인 군복을 착용하였다. 군복의 재료로는 구리, 청동, 철로 싸 비늘이나 사슬 모양으로 하여 가죽으로 만든 튜닉을 덧붙이거나 헬멧을 만들었고 무릎 덮개도 만들었다([그림 3] 참조).

[그림 4] 를 보면, 아슈르바니팔 왕이 전투용 왕족 마차를 타고 있는데, 파라솔에는 완전히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파리를 쫓는 채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동반하고 있다. 마차 바퀴 옆의 수행원의 복식을 보면 무릎까지 오는 튜닉, 허리띠에 달려있는 길고 가는 술장식 조각, 장식이 된 발드릭, 앗시리아 역사에서 샌들보다 늦게 나타난 목이 긴 부츠, 구두 위로 대님을 교차시켜 무릎 바로 아래에서 묶은, 꼭맞는 긴 호즈(hose)가 그의 상들이다. 윗 부분을 보면 활쏘는 사람은 귀를 덮는 높이 솟은, 헬멧과 금속 비늘을 교차시켜 만든 갑옷을 차

6) 강정식, 「세계문화사」(서울 형설출판사, 1994), p. 81.

7) 신상욱, 「서양복식사」(서울, 수학사, 1989), p. 25.

8) 한양대학교 서양사 연구당 편, 「서양의 역사와 문화」(서울, 한양대출판원, 1994), p. 20.

9) 블랑쉬 페인, 앞의 책, p.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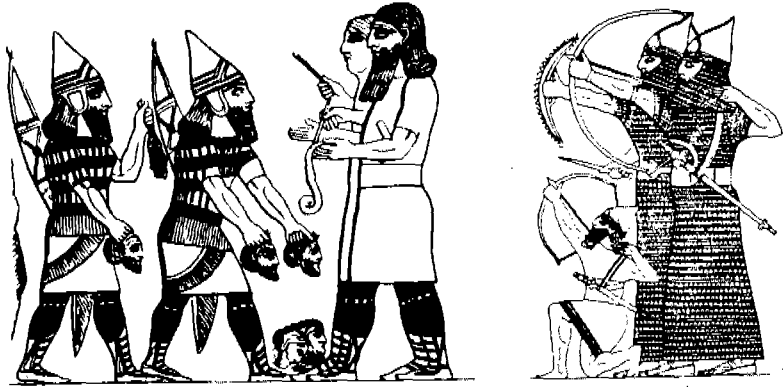
10) 강정식, 앞의 책, p. 87.

11) André, Parrot. *Sumer, Themes and Hudson*, London, 1960, pp. 135~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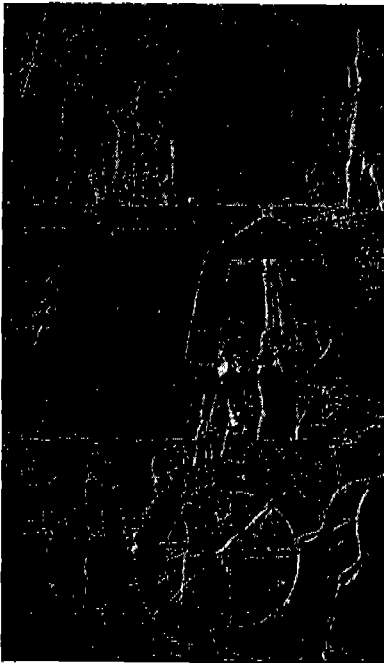
12) Svend Pallis, *The Antiquity of Irak*, Ejnar Munksgaard, Ltd. Copenhagen, 1956, pp. 483~484.

13) 블랑쉬 페인, 앞의 책, p. 54.

14) 신상욱, 앞의 책, p. 29.



[그림 3]¹⁶⁾ 앗시리아의 군인



[그림 4]¹⁶⁾ 전투 마차에 탄 아슈르바니팔 왕.
B.C. 688~625



[그림 5] 캔디스를 입은 王

용하고 있으며, 부츠와 호즈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하다. 바빌로니아는 무릎 길이의 튜닉을 기본으로 하였다.

페르시아인의 군위병은 모두 캔디스(Kandys)¹⁷⁾라는 튜닉을 입었는데, 황, 청, 적갈, 백색 등의 연꽃 무늬와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옷감으로 된 것이다. 캔디스의 끝은 청색이나 자색의 브레이드(Braid) 장식이 되어 있다([그림 5] 참조).

II-3. 크리트, 그리스

1) 역사적 배경

크리트는 에게해 연안의 섬으로 에게 문명의 4대 문화권 중의 하나이며, 일명 미노아(Minoan) 문명이라고

15) 신상옥, 앞의 책, p. 34.

16) 블랑쉬 페인, 앞의 책, p. 63.

17) 원래 메디아인의 의복, 고대 페르시아의 상류층 사람들이 바지와 튜닉을 입고 그 위에 착용한 여유있는 로브, 관두의 형이며, 소매가 어깨로부터 크게 넓어져 있는 것이 특징.

도 한다. 인도-유럽어족의 한 갈래인 아카미아인이 건설하였고, 국왕은 강력한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이집트, 그리스, 아프리카 등을 연결하는 항로의 중심지로 주변 지역과의 해상무역에서 부와 번영을 이루었다. 전형적인 지중해 기후이며, 일년 내내 온화한 기후로 신체의 대부분을 노출시켰으며, 포도, 올리브 등의 과실 재배를 주도하였다. 모계 중심사회로 출산, 풍요의 여신과 뱀, 소 등을 숭상하였고, 이집트 같은 엄격한 계급제도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스의 역사는 기원전 2000년 경부터 시작되었다. 알카익 시대, 헬레닉 시대, 헬레니스틱 시대로 구분되며, 고전 시기에 해당하는 B.C. 480년 이후는 민주정 시대로 이오게니아인이 주축이 되어 아티카에 세운 아테네가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였다. B.C. 492~479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으로 아테네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B.C. 431~404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아테네는 패배하고, 그리스에서 스파르타의 패권이 확립되어 폴리스 체계는 멸망하였다. 알렉산더 대왕(B.C. 336~323)은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을 정복, 인더스 강까지 점령하고 각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그리스의 문인, 상인, 정치가를 이주시켜 그리스 문화를 정복지에 이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 크리트, 그리스의 군복

크리트의 군인들은 몸에 꼭 맞는 짧은 소매의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무릎 위 길이의 짧은 것으로 도련에 술 장식이 있고, 이러한 술 장식은 메소포타미아 복식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의 군인들은 주로 두꺼운 모직물로 된 클레미스틀 착용하여 비나 추위를 막았고, 신발은 버스킨(Buskin)을 착용하였는데 이것은 부츠 형태로 종아리를 덮는 높이이고, 중앙에서 끝으로 조정하게 되어있고, 발가락이 나오는 형태였다([그림 6] 참조). 병사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용사의 향아리'라고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미케네에서 나온 그 향아리는 군인의 제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멧돼지 사냥꾼 들의 의상과 닮았다([그림 7] 참조).

술 장식이 달린 튜닉은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지만, 몸통 윗부분을 완전히 덮는다. 긴 소매는 매우 예외적



[그림 6]¹⁸⁾ 대담한 무늬가 있는 클레미스틀 입은 트라스의 남자



[그림 7]¹⁹⁾ 전사의 잔, 유케나이 B.C. 1200 아테네 국립박물관

인 것이다. 긴 호즈는 무릎 위에서 대넴으로 묶었던 것 같고, 높은 신발이 발목을 받쳐준다. 뿔과 깃털 장식이 있고, 점이 있는 헬멧이 머리를 덮었다. 수염은 군인의 치장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실제적인 특징이다. 향아리는 B.C. 1200년 경에, 즉 트로이 전쟁 때의 것으로 추정된다. B.C. 5세기 전반의 향아리에는 군인들이 허벅

18) 신상옥, 앞의 책, p. 57.

19) 김경옥, 앞의 책, p. 32.

지 중간까지 오는 주름이 잡힌 키톤을 입고 있다. 때때로 짧은 소매가 갑옷의 어깨 위로 나타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B.C. 5세기 초의 항아리에는 테세우스 신이 소매가 없고 비치면서 주름이 잡힌 키톤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군인들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것 같다.

II-4. 로마

1) 역사적 배경

‘고대사의 호수’라는 말을 듣는 로마는,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커다란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며, 고전적인 고대의 모든 성과를 종합하였다. 로마의 역사는 B.C. 8세기 중기로부터 A.D. 5세기 후기에 이르는, 약 13세기의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로마의 국가적 형성과 문화적 발전은 서서히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며, 마침내 유럽 문명의 하나의 큰 기초가 되기에 이르렀다. 로마의 역사는 B.C. 6세기 말 왕정 폐지 후의 공화정 수립부터 B.C. 1세기 말 아우구스투스의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와 A.D. 5세기 후기 게르만 민족에 의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의 두 시기로 크게 나눈다. 로마의 계급은 귀족, 평민, 예민, 노예로 구성되고 있었다. 귀족은 특권 지배 계급으로서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이었다. 평민은 비특권, 피지배 계급으로서 시민권이 없는 대신 오히려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 자유민, 소농, 임금노동자, 수공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예민(Clients)은 귀족의 보호 아래서 귀족의 토지를 경작하여 지대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권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평민이나 해방된 노예가 예민으로 격하, 또는 승격되는 수가 있었다. 노예는 주로 전쟁 포로이거나 부채로 인해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었다²⁰⁾.

B.C. 338년에 마케도니아의 필립은 그리스 전체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 뒤를 이은 알렉산더 왕은 B.C. 334년에 페르시아를 패퇴시키고, 시리아와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나아가 그는 동쪽 페르시아 전체와 인도까지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오리엔트를 헬리니즘화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갈리아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로마는 아직 세계적인 강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²¹⁾.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얻은 한편, 셀뤼코스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부터 동방을 통치하였다. 이리하여 조그마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유대 땅은 서로 지배하려는 양 세력간의 각축장이 되었다. 로마는 서부 이태리의 한 작은 도시에서 다수의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갔다. 강력한 권력자에 의해, 단일국가로 체제가 전환되었고, 계속적인 전쟁과 조약을 통해 영토를 넓혀갔다.

그후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로마는 시칠리아와 코르시카, 사르데니아를 정복하고 강국 카르타고를 복종시켰다. 그 후 계속적으로 영토를 넓혀가서 B.C. 63년 유대가 속한 땅,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된다. 이 때부터 로마는 세계 중심지가 된다. 로마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해 공화국을 만들게 되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였다. 로마제국의 영토는 동서로는 페르시아로부터 영국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북부 독일에까지 이르렀고, 이 영토는 4세기 이상 유지되었다.

2) 로마의 군복

로마의 북쪽에 있는 에트루리아의 군인들은 튜닉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몸에 꼭 맞는 가죽으로 된 키톤을 갑옷 속에 입기도 하였다. 잘 맞는 갑옷과 정강이 받이, 큰 방패, 헬멧 등의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양머리와 깃털 장식에 있는 헬멧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8] 참조). 에트루리아는 청동을 다루는 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조각품과 장신구에서 그들의 금속세공 기술이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후에 로마에 이어져서 강력한 로마군의 무기제작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을죽과 군사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로마인들은 추운 기후에서 다리를 보호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장단기까지 오는 바지는 그들의 병사 보급품의 일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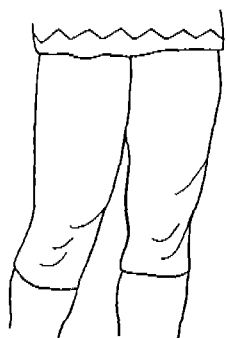
초기 로마인들의 큰 일들 중의 하나가 전쟁이었기 때문에 군사복식은 중요했다. 모든 사람들이 군복무를 해야했던 시대에서 유래한 기사단은 처음에는 오직 그들의 군복무뿐만 아니라 말을 기증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남자들로만 구성되었다. 이 관습은 그것이 원래 가졌던 중요성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20) 차하순, 「서양사 총론」(서울, 탐구당, 1992), pp. 91~94.

21) 에베레트 F. 헤리슨,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 17.



[그림 8]²²⁾ 몬텔레온의 청동 마차, B.C. 550~540.



[그림 9]²³⁾ 페미날리아,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바지의 형태

이들은 돈이 많은 부자층이었고 보통 남자들이 하였던 클라비의 3배 넓이까지 사용할 특권을 가졌다.

페미날리아(feminalia)라고 불리는 것은 대퇴골 부분을 덮었고 무릎까지 오는 튜닉 아래로 보였다([그림 9] 참조).

이것은 때때로 장단지 윗부분을 덮는 꼭 맞는 브리치즈이기도 했다. 로마인들은 가울스 족이나 오랫동안 적인 트리아누스 시대의 다시아족과 같은 사람들을 연상

22) 블랑쉬 페인, 앞의 책, p. 114.

23) 블랑쉬 페인, 앞의 책, p. 124.

24) 블랑쉬 페인, 앞의 책, p. 128.

25) Davenport, Millia., 앞의 책, p. 86.

26) 로마 군대의 100명으로 조직된 단위 부대의 장.



[그림 10]²⁴⁾ 라에나를 머리 위로 올려 입은 트리아누스, 제물을 바칠 때 입는 복식.

시키는 바지 혹은 꼭 맞는 다리싸개를 닮은 것을 오랫동안 거부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야만의 상징으로 여겨졌을지라도 로마장군은 혹독한 복부기후 때문에 기병과 보병 모두에게 그것을 택하게 하였고, 심지어 장군과 황제까지도 그것을 입고 나타났다([그림 10] 참조).

황제와 장교는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면도하고 머리를 깎았다. 장교들은 방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며, 헬멧은 장식용 앞꽂이가 달려있거나 동물 머리 모양이었다. 흉배인 로리카(Lorica)는 금속비늘로 만들어져거나 몸에 잘맞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죽으로 만든 보호용 옷 위에 착용했는데 이 보호용 옷은 무릎길이의 가죽 끈이 세로로 찢어져 있고, 보호와 장식의 목적인 금속 징이 부착되어 있었다. 진동 둘째 부분도 이런 모양으로 어깨와 팔 윗부분을 덮었다. 튜닉은 모직물로 만들어졌고, 맨틀은 적색이나 흰색 팔루다멘툼으로 종종 술이나 자수로 장식되었고, 아블라, 빨강 바이루스(byrrus), 사금 등도 사용되었다. 검은 흉배 위의 벨트 위에 걸쳤고, 신발은 샌들이나 부츠를 신었다²⁵⁾. 기수는 헬멧 대신 동물 가죽을 머리에 썼고 동물 발 부분을 목에 묶고, 가죽은 뒤로 늘어뜨렸다([그림 11] 참조).

백부장(百夫長)²⁶⁾은 장식용 앞꽂이가 달린 헬멧을 썼는데 이 장식은 다양하였고, 비티스(vitis)라는 짧은, 편평한 지휘봉을 가지고 다녔다. 제정 시대에는 오크레



[그림 11] 로마 군인의 복장(신상옥, p. 75)

아(ocrea)라는 무릎 반이물 오른쪽 다리에 착용하고 파에놀라를 입었는데 이 겹옷은 백부장들에 의해 특별히 애용되었다. 집정관은 로리카 스퀴라마타(lorica squamata)와 헤마타(hamata)를 사용하였고, 전형적인 헬멧을 썼다.

로마 군대의 헬멧은 금속으로 만든 그리스 타입이었고, 얼굴 양 옆을 보호하도록 되어있었으며, 군인들은 로리카 세그멘타타(lorica segmentata)라는 갑옷을 입었는데 거드랑이 밑에서 허리까지 긴 가죽 조각들이 겹쳐진 갑옷이었고, 앞이 딱혀 있으며 3~6 개의 수직으로 잘라진 조각들이 어깨에서 덮여졌고, 허리에서 허벅지 중간까지 갈라진 가죽의 스커트가 달려 있었다. 제정 시대에는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로리카 스퀴라마타나 사슬 비늘이 가죽이나 캔버스 위에 달린 로리카 헤마타를 갑옷으로 착용했다. 튜닉은 모직으로 무릎 위의 길이였고, 모직 머플러인 포케일(focale)과 벨트인 신쿨럼(cingulum)과 붉은 갈색 모직의 사품을 맨틀로 걸쳤다. 신발은 칼리게(caligae)라는 부츠나 샌들이었다. 이것은 두꺼운 밑창과 수많은 가죽끈으로 되어 발목까지 올라오게 되나 발가락은 싸여지지 않도록 되어있는 신이었다²⁷⁾.

27) François Boudier, 앞의 책, p. 128.

28) Divanport, M., 앞의 책, pp. 86-87.

검은 글라디우스라는 20~25인치 길이의 두 개의 날이 있는 것으로 벨트나 발드릭에 찼다. 제정 시대에는 스파사(spatha)라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긴 검을 왼쪽에 찼다. 오른쪽에 찬 단도를 푸기오(pugio)라고 했다. B.C. 334년 경부터 방패는 직사각형, 타원형, 육각형, 팔각형으로 가로, 세로 2.5, 4피트였다. 이것은 몸 쪽으로 휘어졌고, 나무로 만들어져 가죽으로 덮였고 가장 자리를 철로 들렀으며, 철로 된 투조장식 움보(umbo)가 중앙에 있었다. 클리페스(Clipeus)라는 큰 원형의 가죽방패는 공화정 이전에 사용되었으며, 후에는 작아지고 철로 만들어져 사령관의 수행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파르마(parma)는 둥글고 가벼운 철로 깎아 만든 방패로 검사, 투사 들에게 애용되었다. 군인들은 헤스타(hasta)라는 긴 창과 필라(pila)라는 무거운 창도 역시 사용했다²⁸⁾. 로마제국은 오랜 기간 정복활동으로 성장한 나라였기에, 군복은 전문적인 전투용으로 체계화될 수 있었다.

III. 결 론

역사의 변화와 흐름 가운데 군복(military costume)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걸맞는 시대상을 반영해 왔다.

본 연구는 고대의 군복에 복식사적 측면에서 살펴보

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크리트, 그리스, 에투루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집트의 군복은 로인 클로스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갑옷과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왕과 장교들은 기모노 형태의 전투복과 넓은 칼라시리스 튜닉 등의 의복으로 차이를 두었던 것 같다. 종교와 깊이 관련된 사회였기에 가죽으로 만든 심장 모양의 문장들을 로인 클로스 앞에 달거나 남편이 전쟁에 나가있는 동안 여왕들이 착용한 머리 장식 등에서 주술적인 목적이 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의 군복은 그 지역의 호전적인 기질과 잦은 전쟁으로 군복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볼 수 있었다. 기원 전 3000년의 수메르는 카우나크스와 케이플을 기본으로 했기에 일반적인 복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방패와 헬멧을 사용하여 전투에 참여하였던 것 같다.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던 만큼 전쟁이 본격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았으며, 더불어 전쟁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던 관계로 '군복'이라 지칭할 만한 복식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15세기 후인 앗시리아의 '군복'은 현대 군복에 못지않게 기능적인 면이 고려되어, 전투복이란 개념이 적용될 정도의 복식으로 발전하였다. 튜닉에 허리띠, 수대, 흉갑, 헬멧, 바지, 부츠, 갑옷 등 역사적으로 밀리터리 커스텀이 정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수메르 국가 당시 방패와 헬멧만을 착용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두 시기 간의 군복형태의 변천과 발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각 국가가 형성되기 위하여 전쟁이 얼마나 빈번하게 치루어졌고, 전쟁의 형태 또한 얼마나 본격화되어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크리트의 군복은 튜닉을 기본으로 하여 도련에 술장식을 특징으로 하였다. 기원전 2000년 경의 그리스의 군복은 튜닉과 클레미스를 기본으로 하여 뿔과 깃털 장식의 헬멧을 착용하였다. 주름잡힌 키톤 등에서 그리스 복식의 특징인 드레이프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같은 기원 전 20세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로니아에 비해서 선진화된 군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같은 강한 도시국가로 융성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같은 군비(軍備)의 발전은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 오리엔트 제국을 완성하게 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하였다. 군복의 선진화

는 곧 다름 아닌, '군사력의 선진화, 국력의 우세화'로 이어져, 선진화된 군복의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은 당연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에트루리아에서는 튜닉을 기본으로, 가죽으로 된 키톤, 갑옷, 정강이 받이, 방패, 헬멧 등을 착용하였고, 이는 로마 군복의 전초적인 모습이었다. 수많은 정복 사업으로 성장한 로마제국은 본격적인 군복의 체계가 확립되었고, 로리카, 벨트, 멘틀 등이 기능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깃털 장식의 헬멧 또한 로마군복의 특징이 될 수 있겠고 추위에 견딜 수 있는 페미날리아라는 바지는 실용적 특징이 부각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로마는 오랜 기간 정복활동으로 성장하고 성립된 제국이었기에 군복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고대의 군복은 군복의 초기 형태로부터 밀리터리 커스텀의 형태까지의 다양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전(現代戰)처럼 무기의 과학화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닌, 양편의 군사가 몸으로 부딪치는 고대 국가의 전투에서 군사의 몸에 걸치는 군복(투구) 및 방패는 군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고, 중국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었기에 군복의 형태는 전문화, 기능화, 고급화를 이루며 점진적이지만 급격한 속도로, 그 모습을 갖추어 갔다. 초기 국가가 세워지던, 고대 국가들의 군복은 곧 그들의 국력이었으며, 생존과 패망, 영광과 굴욕을 결정짓는, 실제적이고도 상징적인 복식이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군복은 복식사에 있어서 의복의 기능성과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복식으로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도 '군복'은 그 나라의 힘과 문화적 수위 및 복식의 기술적 수준을 결정지어 말할 수 있는 복식으로, 자리지켜 나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홍, 「이야기 교회사」(서울, 두란노, 1992).
 강정식, 「세계문화사」(서울, 형설출판사, 1994).
 한양대학교 서양사 연구당 편, 「서양의 역사와 문화」(서울, 한양대출판원, 1994).
 에베레트 F. 헤리슨,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블랑쉬 페인, 「복식의 역사」(서울, 까치문화사, 1988).
 차하순, 「서양사 총론」(서울, 탐구당, 1992).

- 신상옥, 「서양복식사」(서울, 수학사, 1989).
- 이성기 역, 「동양과 서양의 만남」(서울, 유림사, 1980).
- 유순재, 「고대 그리스 복식의 조형성」(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 정홍숙, 「복식문화사」(서울, 교문사, 1981).
- 케인즈, G.E., 「동양과 서양의 만남」(서울, 유림사, 1980).
- André, Parrot. Sumer, Thames and Hudson, London, 1960.
- Bruhn.W., Tilke. M., *A Pictorial History of Costume*, New York, Archcape press, 1988.
- Davenport, M., *The Book of Custrume*. New York: Crown Publishers, 1976, p. 25.
- Doreen Yarwood, *European Costume*, Manchester, Filmset by Service Filmsetting, 1975.
-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Y. 1983.
- Selbi, Robert., *The anatomy of costume*, London, Bell & Hyman Ltd. 1982.
- Svend Pallis, *The Antiquity of Irak*, Ejnar Munksgaard, Ltd. Copenhagen, 1956.